

# 大學生の 自我實現을 위한 教育 및 心理學的 考察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許 鐵 洙

## I. 研究의 意義와 目的

과학화·기계화·조직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또다시 비인간화라는 특징을 지니게 됨으로써 현대인은 심한 소외감·불안·절망감 등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교육이 도전받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임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Reimer, 1971 ; Silberman, 1970 ; Illich, 1970 ; Freire, 1970 ; Rich, 1971, etc.).

현대사회가 갖는 이러한 특성은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은순·송향숙, 1983 ; 이경숙, 1983 ; 한성열, 1979 ; 배순경, 1977 ; 윤회준·이종연, 1986 ; 주영숙, 1981). 특히 대학생은 발달적 특성으로 보아 가장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나 안정성이 가장 적은 시기이다. 즉 성인으로서의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심리적으로는 자아의 발견과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는 생활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자립의 요청이 높아져 환경에 대한 요구나 비판도 커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대개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아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자아와 현실사회 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아울러 여러 가지 갈등과 부적응행동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등학교 교육체제에서 갑자기 상이한 대학체제에로의 전환은 학생들로 하여금 적응상의 곤란을 겪게 되어 대인관계·학업·이성·취업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허철수·양기천 외, 1982 ; 부만근·허철수 외, 1987).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학문에 충실하면서도 진전하게 현실 속에 적응하고 자아를 확립해

나가며, 더 나아가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학내외 문제와 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광범위한 문제의 예방과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한 능력개발이라는 교육적 활동에는 거의 담당치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사회 속에서 대학생들의 자신과 타인의 이해와 수용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당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심리적인 방법을 고찰하여 학생 지도와 교육에 참고자료가 되기 위함이다.

## II. 自我實現 心理學 形成의 基本 立場

William James 가 1890년에 그의 저서 “The principle of psychology”에서 처음으로 자아(self) 또는 자기(ego)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기”를 세 가지 포제 즉, 자기의 구성요소로서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 순수자기와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추구와 자기 보존의 행위 등 자기의 이론을 구축한 이래 자아 이론은 Freud 등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이론에서 Cooley 등의 사회학적 자아이론과 Rogers 등의 현상학적 자아이론으로 발전해 왔다(Gergen, 1971).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아이론을 전개하였고, 그들의 이론이 유사성이 있으나 강조점은 서로 달랐다. 즉, Adler는 ‘creative self,’ Fromm은 ‘true self,’ Horney는 ‘real self,’ Sullivan은 ‘self dynamism’으로, Allport는 ‘proprium,’ Maslow와 Rogers는 ‘self actualization’을 강조하였다(주영숙, 1981. 재인용).

특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아실현이란 용어는 Goldstein(1939)의 유기체 이론(Organismic theory)에서 나온 것으로 유기체는 여러 가지 독립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중요한 충동 즉, 그의 선천적인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았다.

Goldstein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유기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개인의 능력과 세계 안에서 자신이 지닌 속성을 실현시키려는 경향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며, 유기체 이론의 주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상로·이관용, 1980. 재인용).

첫째, 정상성격의 통일성·통정성, 일관성 및 결합성을 강조한다.

둘째, 체제화된 체제로서의 유기체로부터 출발하여 그 전체를 구성요소로 분화시키면서 유기체를 분석해 나간다. 하나의 구성요소는 항상 전체 유기체내의 구성요소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유기체이론은 개인은 여러 가지 추동에 의하기보다는 주된 하나의 추동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가정한다. 이 주된 동기에 Goldstein이 붙인 명칭이 바로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or self-realization)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길이 그에게 열려 있는지 그의 선천적인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목적의 단일성은 개인생활에 방향과 통일성을 제공해 준다.

넷째, 정상발달에 대한 외부환경의 일차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고 성장에 대한 선천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기체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환경에 의해 유기체의 잠재력이 질서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건전하고 통합된 성격을 만들 것이고, 나쁜 환경의 힘은 언제든 지 인간을 파괴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유기체 내에는 선천적으로 '나쁜' 것은 없으며, 그것은 부적절한 환경에 의해 '나쁘게'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Goldstein은 무의식적 동기화보다 의식적 동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무의식은 의식적인 재료가 일정한 상황에서 자아실현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는 그 속으로 후퇴하고, 다시 그것이 자아실현에 적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개인의 잠재력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장 잘 하는가를 발견함으로써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Maslow는 뇌 손상 환자와 정신장애자의 연구에 기초를 둔 Goldstein & Angyal과는 달리 성격에 관한 특정한 이론체계에 이르기 위해 건강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연구한 것이 특징인데 그는 인간에 대한 심리학의 염세적이고 부정적이며 한정된 개념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심리학이 인간의 장점보다 약점에 더 유의했으며, 사람의 미덕은 무시하고 그의 죄악만을 탐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리학이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얻기 위해 능동적인 조처를 취한다기보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절망적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애를 보고 있다.

Maslow는 고통, 갈등, 수치심, 적개심을 다루는 만큼 즐거움, 충만, 사랑, 안녕 등을 고려하는 심리학은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자의적으로 자기의 정당한 관할 구역의 절반에만, 더욱이 어두운 면과 비천한 면에만, 그 자신을 한정시켰다"고 논박하고, 그 상황의 다른 절반, 즉 더 밝고 나은 절반을 공급하고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Hall & Linzey, 1978).

또한 Maslow가 그 자신의 심리학적 입장을 표명한 제 3 세력 심리학은 Freud 학파

(제 1 세력) 와 행동주의 (제 2 세력) 에 대한 반발의 결과이다. 그는 제 1 세력인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에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Freud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만 관심을 집중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의 고전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제 2 세력으로서의 행동주의적, 연합주의적, 실험적, 기계론적 심리학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행동주의 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의 행동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행동주의의 과학적 목표가 건강한 인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Maslow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주의 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가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에 비판적이다. 즉, 행동주의자들이 인간을 “규칙적인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복합적 조직 (Skinner, 1971)” 으로 보는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즉, 인간행동의 예측과 통제에 목표를 두는 행동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건강한 인간들은 통제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를 향유하기를 원하고, 보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며 (Maslow, 1970), 만일 당신들이 동물실험실에서 연구한다면 인간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는 쉽사리 해결을 보지 못할 것” (Maslow, 1968)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구체적인 지적은 행동주의가 친절, 관용, 우정과 같은 적극적인 성질을 먼 행복, 기쁨, 충실감, 평화로운 마음, 만족, 즐거움, 유희, 안녕, 의기양양, 희열 등의 인간행위의 적극적 측면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어 왔고, 과학자는 인간의 약점만을 강조하여 인간의 장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사람이 비전전한 사람, 노이로제 환자, 정신병자, 범죄자, 게으른 사람, 정신박약자의 연구에 몰두하게 되어 버린다면, 인류에 대하여 그가 갖는 희망은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점소하게 되어 버리고 현실적으로 위축되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점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 신체장애자, 미숙아, 발육장애자, 환자 등의 근본만 연구하고 있으면 불구자의 심리학 또는 불구자의 철학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점차 명백하게 된다.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보다 보편적인 심리학의 과학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Maslow, 1970).

그는 행동주의 심리학 뿐만 아니라, 임상심리학의 분야에서 지배적이었던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에 대해서도 “Freud의 인간상은 분명히 적절치 못하다. 인간의 포부, 희망의 실현, 신뢰와 같은 성질 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Freud는 우리들 심리학의 병적인 반을 제공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심리학에 건강한 반을 채워야 한다” (Maslow, 1962) 고 비판·주장하면서, 그는 신경증환자의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Freud학파의 결론

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정상적인 인간에 대한 심리학의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심리학의 자료는 반드시 심리학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는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을 무시하였던 것이다.

“정신적인 질병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가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평균적인 인간에 대한 연구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신적인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박아청 역, 1983).

이상과 같은 Maslow의 독특한 생각들이 건강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연구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그가 찾아낼 수 있는 최량의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거기에서 그의 독특한 이론을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건강하고, 자아실현한 인간성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의 근본과제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Maslow의 노력은 Freud 또는 Watson이나 그 외의 다른 행동주의자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방의 심리학 가운데서 인류에게 유익하고 의미가 있으며, 응용가능한 것을 평정하며, 거기로부터 앞서 가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입장은, “한 쪽으로의 편향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여러 가지 진리를 하나의 전체적 진리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며, 전체적 진리야말로 우리들이 충실해야 할 유일한 진리 (Maslow, 1962)”라고 밝히고 있다.

### Ⅲ. Maslow의 自我實現 研究의 背景과 接近方法

Maslow의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 그가 배웠던 그의 두 스승 베네딕트와 베르트하이머를 좀더 완전히 이해하려 했던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성격·연구하는 학문·생활이 서로 달랐지만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되는 특징으로서, 이 두 사람의 인격은 대조적인 동시에 양자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에 자극된 Maslow는 이와 같은 유형의 개인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까 하여 그러한 경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로부터 완전히 성숙한 인간에 대한 연구, 즉, 자아실현한 인간의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가 연구한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 친구, 현존하거나 고인이 된 공직인사들, 그리고 선정된 대학생들이었다. 젊은이들과 행한 최초의 시도는 200 명의 대학생이 조사의 대상이었으나 충분히 성숙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브란대이스대학에서 1% 가장 건강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나중에 정해졌다.

Maslow는 그가 생각하기로 가장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생활과 가치관, 그리고 태도 등을 더욱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자아실현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높은 자아실현이 이룩된 사람은 보통사람보다 좀더 완전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건강한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아실현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Maslow, 1970).

첫째, 자기의 내면적 핵심을 수용하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즉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본질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full functioning)이다.

둘째, 자아실현이란 질병, 신경증, 정신병 또는 기본적 인간능력의 상실 혹은 감퇴 등이 가장 적게 존재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자아실현된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자아실현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의 접근방법은 평균적인 사람을 취급하고 있는 행동과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적 방법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행동주의자는 통계적 방법에 절대적인 강조점을 두면서 평균적인 인간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능성이나 이상보다는 현실을 연구하고 있으며, 무엇이 정상적인가를 통계적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평균적인 것은 잘 설명되지만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건강한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Maslow, 1970).

이러한 측면에서 자아실현인을 연구하는 데 기본적인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간이 어느 정도 키가 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가장 키가 큰 사람을 연구하면 좋을 것이다. 인간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빨리 달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에 대한 모집단의 좋은 표집을 내어 평균한 것은 해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자들을 모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 만일 인간의 정신적 건강, 가치적 성장, 도덕적 발달의 가능성을 알려고 한다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인을 연구해보면 좋을 것이다”(Maslow, 1971).

Maslow는 그 이론의 근거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에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2 가지 조건 즉, 조사의 반복가능성과 공적공유성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공적 인물 및 역사적 인물들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제시되는 청년과 어린이들을 보조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자아실현인 연구를 위한 대상 선정의 세 가지 범주(Maslow, 1970)는,

첫째, 일반적인 경우로서 링컨, 제퍼슨, 아인스타인, 스피노자, 슈바이처, 헉슬리 등이며,

둘째, 부분적인 경우로서 현대인 5명,

셋째, 잠재적·가능성인 경우로서 부버, 키츠, 하이든 등 20 명이 선정되었다.

이들 인물에 대한 연구 즉, 습관, 특징, 인격 및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의와 인간의 동기에 대한 이론을 도출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실현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들의 안목을 개방하고 지금 실현 가능성을 발견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충족하는 사람들(self-fulfilling people)에 대한 연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알게 하고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Maslow, 1962).

#### IV. 自我實現의 屬性

Maslow의 심리학은 전체적 심리학, 역동적 심리학, 인간주의적 심리학 또는 자아심리학이라 불린다. 그러나 Maslow 자신은 자아실현 심리학 (self-actualization psychology) 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아실현이란 이 말은 그의 철학의 기본전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Buhler, 1971). 이는 인간은 건장한 성장 (wholesome growth)의 과정을 통하여 실재 (actualities)가 되는 가능성을 소유한다는 전제이다. 이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아실현 철학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Maslow의 이론이 흡사한 점도 있지만 Maslow는 주로 현재의 심리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Sahakian, 1976).

Buhler(1976)는 ‘자아실현’이란 것이 Maslow를 대표로 한 인간주의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핵심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현대 정의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Maslow의 자아실현론은 궁극적 실현을 달성하는 잠재성 (또는 가능성)으로서 본성적이며, 선천적인 성질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Maslow의 ‘정신적 질병’이란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 또는 실패, 완전한 인간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무능감, 또는 자아실현의 완성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다 (Maslow, 1967).

정신질병의 일차적 근원은 욕구불만 특히 기본적인 인간욕구에 대한 불만으로 그 기본적인 욕구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며, 최소한도 긍정적인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다. 자아실현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내면적 자아 혹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악을 낳는다. 기본적인 욕구의 악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악은 파괴성, 공격성, 적의감, 잔학성으로 그 성격을 규정짓는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건전한 인간에 대한 반동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사랑, 자기존중, 타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는 감정 등은 정신건강의 본질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인간은 각각 그들 나름의 고유한 개성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유사한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아실현 (self-actualization), 생산적 지향 (productive orientation), 자아각성 (self-realization), 자아일관성 (self-consistency), 현상적 자아의 고양 (enhancement of phenomenal self), 실존적 존재 (existential being), 자율성 (autonomy), 창조적 존재 (creative

being), 되고자 하는 추구 (seeking to become), 성장하려는 경향 (growth tendency), 충분히 기능하는 (fully functioning), 자아충실 (self-fulfillment), 이와 같은 유사 용어들은 한결같이 적절한 자아의 유지 및 상승에 있으며, 이 추구는 역동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신의 가능성을 신장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이들 의미는 거의 공통적이다 (안창일, 1986. 개인용).

개인은 그 나름의 풍부하고, 순수하고,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고유성,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고유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통일성을 기하고 탐색하고 표현하려는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향을 지칭하여 Maslow는 성장의 동기 (growth motivation)라고 하였다.

Maslow에게 있어서의 성장의 개념은 “재능, 능력, 창의성, 지혜 및 성격의 끊임없는 발달로서 어떤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심리적 욕구의 점진적인 만족” (Maslow, 1970)이라고 정의하였다.

Maslow의 이러한 성장의 동기 (growth motivation)에 대해 Rogers는 과정을 강조하며 실현경향성 (actualizing tendency)으로 표현하고 있다.

Rogers에 의하면 모든 유기체 속에는 그것 자체의 고유한 가능성들의 건설적인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으며, 인간 존재 속에 역시 복잡하고도 완전한 발달을 향한 자연적 경향성, 실현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Rogers, 1980).

Rogers는 이러한 실현경향성이 모든 유기체 그리고 인간속에 작용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실현경향성은 인간의 다른 모든 동기들의 원천이 되는 유일한 동기로 보고 있다 (Hjelle, Ziegler, 1981; Schultz, 1977).

인간에게 있어서 실현경향성의 가장 중요한 면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총동이다. 그는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복잡한 신체구조의 발달과 자기충족 및 성숙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모든 운동들을 포함한 진보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

Schultz(1977)는 실현경향성을 좀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즉, 우주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형성적 경향성 (formative tendency)의 부분으로서 생득적인 것,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는 행동의 최상의 동기로 간주되고 있다. 이 경향성은 성장의 신체적·심리적 요소들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실현경향성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현가능성은 단순히 유기체의 지장감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긴장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Schultz, 1977; Hjelle, Ziegler, 1981; Meador & Rogers, 1979).

Rogers 는 모든 행동이 긴장의 방출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 보지 않고 행동을 발달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아실현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충분히 기능하는 (fully functioning), 경험에의 개방 (openness to experience), 실존적 삶 (existential living), 되고자 하는 추구 (seeking to become), 성장하려는 경향 (growth tendency), 유기체적 신뢰감 (organismic trusting), 경험적 자유 (experiential freedom), 창조성 (creativity) 등이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이란 한 인간이 자신이 되는 과정이며, 그 개인의 독특한 특성들과 잠재력을 발달시켜 가는 과정인 것이고, 좀더 유능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 (Schultz, 1977; Hjelle, Ziegler, 1981) 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이란 최종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유능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Rogers, 1961). 따라서 인간의 삶이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과정인 것이다.

## V. 自我實現人的 心理的 特徵

자아실현인에 대한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특수하거나 객관적이거나 조작적인 정의를 요구한다. 자아실현을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단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자아실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은 원칙상 가능하며,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아실현인을 지칭하는 유사한 용어들을 검토해 보는 일은 자아실현인을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Snygg & Combs (1949)는 적합한 자아 (an adequate self) 라고 표현했는데, 적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그 자신을 수용한다. 적합한 사람은 또한 타인을 수용한다.

Combs & Snygg (1962)는 또한 적합한 사람 (adequate personality)은 그가 지각하는 것을 왜곡하거나 거부함이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깨달는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모험하고, 실험하고, 탐색하기 때문에 자발적이며 창의적이다. 즉, 그는 자신이 가진 감정, 신념 및 태도가 행동의 적합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안다.

적합한 사람은 다정 다감하다. 방어기제를 비교적 적게 쓰기 때문에 그는 적대감이나 공포보다는 오히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

Rogers (1969) 는 완전히 성공적인 교육에서나 상담으로부터 형성된 최적인간(the optimal person)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욕구의 결과를 기술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a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은,

첫째로 그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모든 내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왜곡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환경을 예리하게 각성한다.

둘째로 실존적으로 생활한다. 매 순간이 새롭다. 생활은 유동적이며 고착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은 과정 속에서 변화하며, 융통성이 있으며, 순응적이다.

셋째로 자기 자신이 각자의 실존적 상황에서 가장 만족하는 행동에 도달하는 신뢰로운 수단인 것으로 지각한다. 통제의 소재가 내부에 있다. 따라서 불만족한 행동은 피드백을 통하여 교정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Kelley (1969) 는 Combs & Rogers 의 개념과 유사한 충분히 기능하는 자아(The Fully Functioning Self)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비록 그의 한계를 깨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유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 타인을 높게 평가하며 그들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환경임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변화되고 발달되고 있음을 안다. 인간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면서 유지한다. 그는 외부의 강요보다는 그러한 가치에 준하여 생활한다. 창조적인 것으로 본다.

Combs & Rogers 의 견해와 다름이 없는 이러한 특성 외에 Kelly 는 다른 하나의 특징을 추가하였다. 그것은 즉,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그가 항상 정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과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는 과오를 학습의 자료로 삼고 그것을 이용한다.

어느 누구보다 자아실현의 본질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해 온 사람은 아마도 Maslow 일 것이다. 그는 앞서 고려된 특성들을 모두 종합하고 그의 연구 결과를 추가시켜

고도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 (self-actualizing people) 의 포괄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Maslow, 1970).

자아실현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Maslow가 택한 방법은 뛰어난 자아실현인이라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일단의 준거집단 (일부 사망, 일부 생존)을 선발하고 이때 사용된 일반적인 정의는 “재능, 능력, 가능성 등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계발하는 것으로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충분히 실현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물상을 이제까지 계발하여 왔고 또한 계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보통 사람과 구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통점은 14 가지로 요약된다.

1. 현실에 대한 보다 능률적인 지각과 현실과의 보다 편안한 관계; 현존하는 것을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왜곡하여 지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 자아실현인은 환경을 인간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좀더 예리하게 작성하고 있다. 그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롭고 의례적인 것을 대할 때 수반되는 의아심, 불확실성 및 잠정성에 관대한 태도를 갖는다.

2. 자아, 타인 및 자연에 대한 수용적 태도; 자아실현인은 온갖 취약점, 불완전성, 낙약성 및 허점을 가진 그들의 본성을 수치롭게 생각하거나 죄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타인의 그러한 특성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꾸미거나 가면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 타인 및 사회가 취해야 할 당위와 현재의 상태간에 벌어진 간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자발성; 자아실현인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경멸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일치주의자 (conformists)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반항 자체를 위한 반일치

주의자( anticonformist )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밖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거나 혹은 목표를 부여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동기는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잠재가능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4. 문제중심성 ; 자아실현인은 자아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외부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임무지향적( mission-oriented )이며, 가끔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다.

5. 초월성과 사생활에 대한 욕구 ; 자아실현인은 고독과 사생활을 즐긴다. 그는 타인들이 떠들썩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동요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 타인이 볼 때, 그는 비사회적인 인상을 주기조차 한다.

6. 문화와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 자아실현인은 애정, 안전, 존경 및 소속감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 의존하지만, 그들이 주로 만족을 얻는 것은 실 세계나 타인이나, 문화나 목적과 수단의 관계나 외재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발전에 부심하며 그들이 지닌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자원에 의존하여 끊임없는 성장의 길을 밟는다.

7. 끊임없이 참신한 감수력 ; 자아실현인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세계속에서 외경, 즐거움 및 경이로움을 여러번 경험한다.

8. 신비한 경험( mystic experience )과 대해를 향한 감회( oceanic feeling ) ; 그 정도와 빈도는 다르지만 끝없는 대해의 지평선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다는 감흥, 그리고 잇따라 그 경험이 가치롭고 소중한 일상생활에 잔유효과를 갖는다는 확신을 수반하는 희열, 외경 및 경이로움을 자아실현인은 경험한다.

9. 공동체적 감정 ; 자아실현인은 인간전반에 대한 심오한 공감, 동정, 혹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감정은 타인이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의 싫증을 준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시인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인간적인 관계 ; 자아실현인은 타인과 깊은 인간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는 선택적인 것이다. 그들이 내통하는 친구집단은 통상 자아실현하는 사람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존경하거나 따르도록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11. 민주적인 인격; 자아실현인은 사람들을 계층, 교육수준, 인종, 혹은 피부색깔을 토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는 그가 알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비천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어느 누구나 그의 앞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12. 수단과 목적의 구분; 자아실현인은 매우 윤리적이다.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수단을 목적에 종속시킨다.

13. 철학적이고 악의 없는 유모어 감각; 자아실현인의 유모어 감각은 자발적이며, 사려깊은 것이며, 상황에 내재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유모어에는 적의, 우월감, 혹은 빈정거림이 담겨져 있지 않다.

14. 창의성; Maslow의 피험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각각 그 나름의 방식에 의해서 창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서 창의성이란 어떤 특별한 재능으로서의 창의성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속에 가능성으로 내재하고 있지만 통상 문화화에 의해서 질식된 창의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물을 참신하고 천진난만하고 직접적으로 보는 방식인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특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의 가능성을 이용하고 개별적인 만족을 경험하면서 최대의 수준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에서 그토록 개방적이며, 정직하며, 타인을 믿고 수용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있다.

사회는 각 개인과 개인들, 그리고 그들간의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이 둘을 모두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런 특성이 사회의 존속에 필요하며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함으로써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사회 안에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거나 현재에 있어야만 한다는 추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특성들은 더욱 큰 규모로 계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그런 특성들, 그리고 적어도 그 특성들의 일부가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Ⅵ. 自我實現을 위한 教育的 接近

Maslow는 教育의 궁극적 目標을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물론 教育의 궁극적 目標을 자아실현에 둔 것은 Maslow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Whitehead의 self-development, Dewey나 Froebel, Perls의 self-discovery, Pestalozzi나 Herbart의 self-activity, Montessori의 autoformation 또는 self-development에 이르기까지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Maslow는 자아실현의 의미는 완전한 사람됨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적 성장에 대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는 教育의 궁극적 目標로서 인간을 최대로 인간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그를 최대로 가능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운다는 것이다. 즉, 그가 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되도록 하며, 그가 깊숙히 갖고 있는 잠재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Maslow, 1964). 따라서 教育은 자아실현의 한 형태이며, 이러한 教育을 통하여 심리적 건강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教育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Freud, Rogers, 그리고 Maslow가 일치하고 있다.

자아실현이 教育의 일차적·궁극적 目標임에 따라 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Maslow, 1973).

1. 직업 또는 사명의 탐색; 인간이 직업 또는 사명을 탐색한다는 것은 곧 생생한 자아실현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아충족(self-fulfillment)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이며, 자신의 내면적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Maslow, 1968).

2. 가치관에 대한 지식과 그 획득; 자기 자신 속에서 가치관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치체계를 갖는 것이 자아실현의 길이라고 보았다. 가치체계를 갖지 않는 상태는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류는 바로 일광, 칼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인생의 철학, 종교, 또는 가치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가치체계란 바로 자아실현하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 탐구된 고차원적인 또는 궁극적인 가치 즉, 존재가치 (Being-values) 를 말함이다.

3. **삶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 생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자살과 즐거움이 없는 삶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상과 행위를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즐거운 경험, 절정경험, 전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체험에 너무나도 적게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학습장면에서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절정경험의 획득** ; 학습경험은 절정경험을 획득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절정경험을 유발시키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에 둘러싸인 존재, 2) 사랑하는 관계에 열중하는 존재, 3) 화초와 같은 미적인 것에 대한 감상 능력, 4) 지적 탐구심, 5) 음악적 감상능력, 6) 완벽한 것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것들이 절정경험을 획득하는 데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다. 절정경험이란 격렬하고 고무적인 상황이 계기가 되어 일어나는데, 절정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은 한 인간의 절정경험의 횟수와 응축은 그 사람의 심리적 건강의 수준과 그의 내면적 발달상태와 비례한다고 하였다 (Maslow, 1968).

Maslow가 말하는 절정경험이란 “생애에서 가장 멋진 경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환희의 순간들, 영광의 순간들, 이런 것들은 사랑에 도취되었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책이나 그림으로부터 불현듯 강렬한 감동을 받았을 때, 또 위대한 창조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 (Maslow, 1968) 이라 했으며, Maslow는 Freud가 사용한 대양감정 (oceanic feeling) 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 Freud는 이러한 감정을 ‘외계전체와 녹기 힘들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과 일체가 되어 있는 감정’이라 했다 (Freud, 1961).

5. **성취 의식** ; 성취의식은 특히 학교교육 초기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열정을 강화시키고, 죽음에 대한 원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교사가 학습자들을 위해 훌륭한 모델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은 교사 자신이 자아실현자이어야 한다. 즉 모방학습을 통하여 자아실현으로 이끌 수 있다.

6. **심리적 욕구의 충족** ; 학습은 안전감, 소속감, 자존감 등과 같은 기본욕구의 충족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이들 욕구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의 성장은 심리학적으로 빛나가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이 사랑에 대한 가치감, 소속감 및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는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Maslow는 자아실현을 위해 이차적 내지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위 교육 목표들을 6 가지로 제시하면서 자아실현에 이르는 여덟가지의 행동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Bugental, 1967).

1) 자아실현은 충분히, 생생하게, 무아의 경지에서 완전히 집중하고 완전히 흡수하는 상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의식이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을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을 선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아실현은 각각의 선택을 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전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에 정착하는 일이지만 어리석고 신선미가 없다. 그러나 성장을 택하는 것은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에 자신을 공개하고 새롭고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어려움이 있다.

3) 실현된다는 것은 진실로,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지 잠재능력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개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성을 충실히 안다는 것이다.

4)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직하고, 책임을 지는 일은 자아실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5) 위 4 단계는 '더 나은 생의 선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들 자신의 판단과 본능을 좀더 잘 알아서 그에 대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6) 자아실현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잘 해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능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재능이나 지능 그 자체가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실현이란 누가 소유할 수 있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과정이다.

7) 절정경험은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우리가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 사물을 더욱 전체적으로 보며 인식을 더욱 통합하게 되고 우리들 자신과 세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8) 자아실현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은 자신의 방어기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들 형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억압이나 투사 등과 같은 방어기제 때문에 외부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아실현을 통해 이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Moustakas (1974)는 책임감 있는 자아성장을 유발할 풍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개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안다. 24 시간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은 자신뿐이다.

2) 자신의 감정, 사고, 경험에 대한 각 개인의 인지와 표현은 어떤 진단이나 평가보다도 더 생생한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낸다.

3) 단지 그 자신만이 자기 잠재력을 제발할 수 있다. 타인이 아무리 열렬하고 희생적으로 이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신만은 못하다.

4) 개인은 자아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구애받지 말고 꾸준히 자기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신념은 현실을 충족시키는 일차적 요인인 것이다.

5) 사물은 그 자체 속에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럼에도 개개인에게는 경험의 독특한 배경을 반영하는 그 의미를 사물의 뜻으로 돌린다.

6)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독특한 인격적 경험과 그로부터 창조해 낸 가치의 맥락 안에서 논리적이다. 그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세계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7) 교사가 아동을 전인격체로 평가하고 인정할 때 그 아동은 자신이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하게 되고, 자기발전 및 실현에 있는 힘을 다할 것이다. 반면에 아동이 거부당하고 무의미한 실존으로 강요될 때, 그는 자아가 소외되었음에도 자기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데 자료들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8) 자아의 성장은 교사가 계산해서 계획하여 준 외적인 동기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성장을 위한 투쟁이란 언제나 나타나게 마련이며, 각 개인의 내부에 하나의 중심적 경험을 이룬다.

9) 외적으로 유발된 위협이 있을 경우,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 노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아는 수동적이며 통제되고, 순수함을 잃게 된다. 외적으로 부과된 위협에서부터의 자유(그 자체가 좌절과 고통을 포함하는 것), 존재하는 것에로의 자유는 자아로 하여금 삶에 개방적이 되게 하고 실현화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0) 의미있는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교육적 환경은 첫째, 학습자의 자아에 대한 외적 위협들, 즉, 거부, 비평, 평가, 보상, 처벌 등을 최소로 줄이고 반면에 개성이나 그 사람의 독특성을 가치있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며, 둘째, 인간은 자신에게 유용한 물질과 자료를 자기자신의 관심, 잠재력 및 준비성의 빛 안에서 자유로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 학생은 처음에는 상당한 좌절과 고난과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

으나 점차로 책임감있고 창의적이며 자유롭게 된다. 그는 독특한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하고 독립된 존재로 알려질 수 있는 인간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화하고 분석하며, 지성화하는 타인의 세계속에 에워싸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제도적 표준, 가치 및 목표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실재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실재 자아와 일치하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아무도 이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그의 앞날을 예언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과거와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아의 실제적 방향과 순수한 재능 및 자원을 활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다운 실존으로의 유일한 길이 된다.

## 參 考 文 獻

- 박아청, Maslow : 자아실현의 심리,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 박아청 역, 제 3 세력의 심리학,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 배순경, 대학생의 자아실현성과 자아개념의 상관적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부만근·허철수 외, “대학생의 학업 부적응에 대한 종합적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학생생활연구, 제 9 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7.
- 윤희준·이종연, “대학생의 자아개발을 위한 소집단 훈련의 효과” 학생지도 연구, 제 10 집, 충북대 학생지도연구소, 1986.
- 이상로·이관용 역, 성격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부, 1980.
- 이은순·손향숙, “대학에서의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 실태 조사” 학생생활 연구, 제 19 집, 이화여대 학생생활연구소, 1983.
- 주영숙, “대학생의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학생지도 연구, 제 2 집, 덕성여대 학생지도연구소, 1981.
- 한성열, “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허철수·양기천 외, “제대 학생생활지도의 개선방향 탐색” 학생생활 연구, 제 5 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2.
- Brammer, L.M. & Shostrom, E.L., *Therapeutic Psychology* (3r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72.
- Hall, C.S. &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3r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8.
- Hjelle, L.A., & Ziegler, D.J., *Personality Theories* (2nd ed.), N.Y. : McGraw-Hill Book Co., 1981.
- Illich, Ivan, *Deschooling Society*, N.Y. : Harper & Row, 1970.
- Kelley, E.C., “The Fully Functioning Self,” In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Perceiving, Behaving, Becoming*, Washington, D.C.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62.
-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Y. : Harper & Row, 1970.

- Maslow, A.H., *Goals of Humanistic education*, Esalen papers, Calif Esalen Institutes, 1968.
- \_\_\_\_\_, *New Knowledge in Human Values*, N.Y.: Harper & Row, 1959.
- \_\_\_\_\_,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Y.: Viking, 1975.
- \_\_\_\_\_,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Y.: Van Nostrand, 1962.
- Meador, B.D., & Rogers, C.R., *Person-Centered Therapy*, Current Psychotherapies, (2nd ed.), Itasca, Illinois: F.E. Peacock Publishers, Inc., 1979.
- Moustakas, C., *Personal Growth: The Struggle for Identity and Human Values*, Howard A. Doyle Pub. Co., 1974.
- Rich, John Martin, *Humanistic Foundations of Education*, Washington: Charles A. Jones Publishing Co., 1971.
- Reimer, Everett, *School is Dea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71.
- Sahakian, W.S.,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Learning*,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6.
- Schultz, D., *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Y.: D. Van Nostrand Co., 1977.
- Silberman, Charles E., *Crisis in the Classroom*, N.Y.: Vintage Books, 1970.
- Skinner, B.F., *Beyond Freedom and Dignity*, N.Y.: Knopf, 1971.
- Snygg, D. & Combs, A.W., *Individual Behavior*, N.Y.: Harper & Row, 1949.